

# 골든스테이트 오클라호마 꺾고 결승 진출

## 1승 3패 위기서 3연승 클리블랜드와 우승경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8%의 희박한 확률을 극복하고 미국프로농구(NBA) 2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골든스테이트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라호마 오라클 아레나에서 펼쳐진 2015~2016 NBA 오클라호마 시티 시리즈의 서부 컨퍼런스 결승 7차전(7전4선승제)에서 96-86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우승팀 골든스테이트는 시리즈 전적 4승3패로 오클라호마 시티를 힘겹게 누르고 두 시즌 연속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됐다. 결승전 상대는 지난해 우승을 다뤘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다.

올 시즌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73승9패) 기록을 세우며 막강한 전력을 뽐낸 골든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 들어서도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나기 전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펼쳐진 컨퍼런스 결승 1차전을 내주는 등 4차전까지 시리즈 전적 1승3패로 뒤지며 탈락 위기에 몰렸었다.

NBA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1승3패로 뒤진 팀이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뒤집은 경우는 전체 22개 팀 중 9개 팀에 불과했다.

골든스테이트가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8%의 희박한 가능성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 같은 위기에서 5차전을 승리하며 벼랑 끝에서 탈출한 골든스테이트는 적지에서 펼쳐진 6차전도 집수하며 3승3패로 시

리즈를 동률로 만들었다.

그리고 안방에서 치러진 7차전 양팀의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에서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판 커리(36점 8어시스트)와 클레이 탐슨(21점 5리바운드)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활약을 앞세워 역전 드라마를 썼다.

전반까지만 해도 골든스테이트는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42-48로 6점 뒤졌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을 앞세워 리드를 잡았다. 승부의 분수령은 3쿼터였다.

골든스테이트는 쿼터 중반까지 커리의 3점슛 3방 등 5개의 3점슛을 꽂아 넣으며 57-54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3쿼터 남은 시간 접전 상황에서 벤치 멤버들의 활약으로 '12-2'로 앞서며 11점차 리드를 가져왔다.

4쿼터에도 커리와 탐슨이 공격을 주도하며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가져가는 듯했으나 오클라호마 시티도 막판까지 끈질기게 추격을 이어갔다.

이때 커리가 상대 추격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커리는 90-86으로 쫓기던 종료 1분8초 전 3점슛을 쓰는 과정에서 상대 반칙을 이끌어 냈고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켰다. 종료 26.8초를 남기고는 결승행을 확정짓는 3점슛까지 터뜨리며 오클라호마 시티를 침몰 시켰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케빈 듀란트(27점 7리바운드)와 러셀 웨스트브룩(19점 13어시스트)을 분전했지만 7차전을 내주면서 역전 드라마의 희생양이 됐다.



커리는 90-86으로 쫓기던 종료 1분8초 전 3점슛을 쓰는 과정에서 상대 반칙을 이끌어 냈고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켰다. 종료 26.8초를 남기고는 결승행을 확정짓는 3점슛까지 터뜨리며 오클라호마 시티를 침몰 시켰다.



완주봉동초 전국소년체전 배드민턴 금메달

완주 봉동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 초등부 배드민턴 전북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북대표 선수는 봉동초를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봉동초 6학년 김태림,임관희 유준서, 장하민 김지성이자문과 정음동초 6학년 김도윤이 전북대표로 참가해 예선부터 전남과 부산 등 막강팀들과 맞붙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금메달을 목에걸어 우승의 의미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의미있는 대회였다.

김태림 선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처음 출전해 예선부터 워낙 강팀과 맞붙어 어려운 고비가 많았으나 어려운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잘할수 있었던 것은 평소 선수들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 개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지도해주신 안형식 감독과 나경아 전문지도자, 유재영 방과후 선생님의 덕분에 금메달을 목에 걸수 있었다"면서 우승의 감격에 젖어 말을 잊지 못했다.

/완주=이중복기자

## 래시포드, 맨유와 2020년 6월까지 계약 연장

잉글랜드 축구의 19세 셋째 마커스 래시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연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래시포드와 오는 2020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그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맨유 유스팀에 뛰었던 래시포드는 2015~2016시즌 전임 루이스 판 할 감독에 의해 발탁돼 성공기도를 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2월26일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유로파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이번 시즌 맨유에서만 17경기에 나서 8골 2도움을 기록했다.

공격진 강화를 위해 스웨덴 특급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5)와 래시포드를 놓고 저울질해 온 맨유는 래시포드를 넘버원 스트라이커로서 우선 선택했다.

로이 호지슨 잉글랜드대표팀 감독은 래시포드를 다음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2016에 공격수의 한 명으로 점찍고 있다.

래시포드는 "나는 맨유의 팬이었다. 최상의 팀에서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며 "내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슈틸리케호 오늘 '무적함대' 스페인과 평가전

## "세계적 강팀이지만 이기기 위해 준비할 것" 비장한 각오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이 부임 후 가장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이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후 11시30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스페인과 평가전을 갖는다.

스페인인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에 올라있는 강호다.

54위의 한국보다 48계단이나 높다.

2년 전 브라질월드컵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지만 지난해 A매치 성적 8승1패에서 알 수 있듯 금세 과거의 위용을 회복한 상태다.

슈틸리케호는 2015년 20경기를 치러 16승무패의 호성적을 거뒀다.

1월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에 연장전에서 한 차례 졌을 뿐이다.

이 기간 동안 단 4골(실점률 0.2골)만을 내줬는데 이는 FIFA 6개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만났던 상대들과 스페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슈틸리케호는 아시안컵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 2018 러시아월드컵 2차예선을 치르면서 약체로 분류되는 팀들과 많은 대결을 벌였다.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한국으로서는 스페인전을 통해 현주소를 냉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스페인이라고 평소와 달라질 것은 없다. 언제나 그랬듯 평가전에 임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목표는 전술의 점검과 경기의 승리다.

슈틸리케 감독은 보다 많은 선수들을 지켜보기 위해 평소 23명보다 적은 20명으로 팀을 꾸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스페인인 세계적인 강팀이지만 이기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긴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원정에 갈 필요도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적어도 경기장 위에서는 경기력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축구 철학과 정신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 전부터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수들도 평가전 답지 않은 다부진 각오로 스페인전을 준비 중이다.

예정됐던 군사훈련까지 미룰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는 기성용(27·스완지 시티)은 "강팀들과 경기를 하는 건 좋은 경험일 것"이라며 팀의 주장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설명했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2무3패로 크게 뒤진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2년 경기에서는 1-4로 대패했다.

유로2016에서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스페인은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축 선수들을 대거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소화한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뛰기 어려운 것은 아쉽지만 세르히오 부스케츠(28)와 안드레스 이냐에스타(32·이상 FC바르셀로나), 세스크 파브레가스(29·첼시) 등이 견제하다.

/김민근기자

## 장수 장계개최 영·호남 친선축구 교류전 성료

제23회 영·호남 친선축구 교류전이 지난달 29일 영호남 축구동호회 선수와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계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계조기축구회(회장 서성권)주관, 장수군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엔 거창, 가야, 안의, 광주 호남청과, 남원, 구례, 청산, 장계 FC 등 영호남 7개시군 8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7개 시·군은 올해로 23번째 축구경기를 통해 각별한 인연을 다지고 있으며 가이문화원과 지리산권 공동개발 등 지역간 연계사업을 강화하고 지역화합을 다지는데 주력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